



배영휘
한국CM협회 회장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삶을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삶을 추구하려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시장의 물량은 여느 해와 같이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이나기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계약하고도 착공이 되지 않아 우리 업계로서는 고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소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우리 건설업계 전체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실의에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도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도 계속해 오던 금리 인상을 조절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세계경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지만 계속되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따른 중동정세의 계속되는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을 비롯한 국제정세가 세계 경제와 우리의 국내경제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특히 건축분야)은 그동안 주택사업에 몰입하여 오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얼어붙기 시작하여 다가올 건설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에 발생하여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설안전 사고에 대한 우리 업계의 심리적인 압박감마저 아직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70년을 성장하여 온 건설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또 다른 제도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업계를 옥죄려고 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각자가 처한 사정과 환경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인 제도와 정책만으로 완전히 또는 절대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려는 제도와 정책은 보편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분량이 많고,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시장이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은 담당자만 바뀌면 이를 오용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축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각자가 창의를 발휘할 수 있고 신의와 성실에 근거한 순수한 시장위주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타당성 있는 쉬운 제도와 정책에 따른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상호 신의가 선행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제도나 정책은 남을 속이려거나 불이행이 다반사지만 신축성 있고 경제적인 제도나 정책은 반대하기보다는 동참하는 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정부를 비롯한 수요자나 건설 공급자는 상호 신뢰 사회를 구축하여 그야말로 윈윈하는 환상적인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올해에는 어떠한 건설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이를 잘 극복하여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CM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하고, 시대에 따라 발전되어 가는 툴(Tool)을 구사할 수 있는 전천후 산업을 목표로 우리 다 함께 지혜를 모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CM 본래의 개념과 정신을 선도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